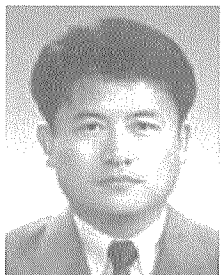


2005년 디지털전자산업 전망

1. 2004년 디지털전자산업 동향 및 2005년 전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본부장

2004년 디지털전자산업의 키워드는 '양극화현상 심화'로 말할수 있는데, 다시말하면 수출은 크게 호조를 보인 반면에, 내수는 매우 부진함에 따라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산업연관성이 멀어졌다고 평가할수 있다.

상반기에는 미국과 일본경제의 호조, 중국 등 개도국의 고성장이 지속 등 여러 호조요인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들어 고유가 및 미국 등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중국의 긴축전환에 IT경기 둔화가 더해지면서 상반기 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반기 수출은 고유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중동정세, 테러위협 등 악재속에서도 휴대용전화기, 컴퓨터용모니터, 프로젝션TV, PDP-TV, MP3P,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요 디지털 품목에서 큰폭의 증가를 보였다.

내수는 백색가전의 소비감소 등 체감내수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호황에 따라 전자기기에 소요되는 전자부품과 산업용기기들의 국내수요가 늘어났으며, 디지털TV, 카메라폰 등 새로운 디지털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액기준 내수는 증가했다.

생산은 디지털TV,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이들 제품의 수출호조와 함께 설비투자의 증가, 생산라인의 가동증가에 따라 생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수입은 중국 등 해외 현지공장으로 부터의 반입이 늘어났으며, 무선통신기기, 디지털TV 등 신디지털제품에 소요되는 핵심부품,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수출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현지공장에 대한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세계 경기회복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디지털TV 등 디지털 전자기기의 공급기지로 부상했다. 내수는 가계부채 급증, 청년고실업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지만,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 미국식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촉진, 휴대용전화기 등 수출 수요가 많은 전자부품시장 확대 등 여러 호재에 힘입어 증가했다.

생산은 세계 전자 IT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설비투자의 증가, 약진하고 있는 수출성장 등 주로 해외 수요가 국내생산 증가를 견인했으며, 프리 미엄급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생산 증가에다,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메이커들의 적극적인 물량확보 전략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수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현지 공장으로부터의 역수입, 중국산 전자제품과 부품의 품질 향상, 다국적 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국내시장 활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외산 핵심부품의 수요 증대 등 수입증가세가 지속됐다.

2005년에는 고유가 등으로 주요국의 경제가 속도조절에 들어감에 따라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며, 국가별로는 미국은 3% 중반을 하회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일본은 고유가와 중국경제 등의 변수로 인해 내년에는 2% 미만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고정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수준에 근접한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주요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여건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며, 내수의 경우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 올해의 침체에 대한 반등은 예상되지만 실업자 및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인해 낮은 회복세가 전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TV,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1천 139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는 정부의 소비촉진정책과 더불어 디지털TV, 다기능 휴대폰 수요, 수출 수요가 함께 하면서 전년대비 10.8% 증가한 173조원이 전망되며, 생산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급 제품의 수출 및 내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1.2% 증가한 238조원, 수입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부품의 수입과 MP3P 등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3.9% 증가한 583억불로 전망된다.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및 산업용기기 부문은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등 주력 품목의 세계경쟁력 확보 및 세계적인 디지털제품 수요 기반 확대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PC는 액정모니터로의 교체가 급속히 진전되고, 무선통신기기 부품도 무선환경의 급속한 발전 및 미국, 유럽 등으로의 브랜드 경쟁력 상승을 통한 해외사업 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디지털가전기기 부문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시장의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낮은 성장이 전망되나, 디지털TV 및 프리미엄 백색가전 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으로 디지털방송이 확산되면서 디지털TV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국산제품의 품질과 브랜드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기능에어컨,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Base Effect 효과와 정부의 경기진작 정책 가능성은 내수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 부문은 중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성장 및 IT경기 회복과 함께 디지털전자시장이 크게 성장을 보였던 올해에 비해 내년은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의 세계경제는 호조를 보였으나, 고유가와 각 국가들의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TV 수요 확대에 힘입어 평판디스플레이 및 PCB 제품과 3세대 모바일기기의 시장 확대에 관련 핵심부품 수요는 상승이 예상된다.

2.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가트너코리아
김창수 이사

올해 세계전자시장은 작년에 비해 10.8% 정도 증가한 1조 1,510억 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7.4% 내외로 성장세에 있어서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하반기에 지속되는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경제의 더딘 회복, 소비심리불안 증대 및 재고증가 등과 같은 외적변수가 반영된 결과이다.

디지털전자산업 회복 패턴을 참조할 때, 휴대폰은 회복의 첫 주자이며,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 한해동안, PC 판매는 결국 회복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모든 분야의 발전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한다.

〈세계전자시장전망(\$B)〉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3/08
데이터 프로세싱	329	350	373	386	396	408	4.4
통신	204	254	279	287	300	320	9.4
가전	224	247	272	292	319	340	8.7
자동차용 전자	74	79	84	88	93	97	5.4
산업전자	129	139	146	153	159	168	5.4
항공/군수	78	82	83	84	85	87	2.2
전체	1,039	1,151	1,236	1,290	1,353	1,421	6.5

Source : Gartner Dataquest (November 2004)

휴대폰은 2년간의 호기가 지난후에도, 생산은 2004년 연간 23%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트너의 전망은 2004년 연간 시장규모가 약 6억 3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05년에는 5%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휴대폰 시장은 교체 판매가 주를 이루는 매우 진취적인 지역과 진입자들을 위한 저가 상품이 주도적인 신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가고 있다.

미국, 일본 및 유럽과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준이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반면, 칼라 화면과 카메라가 장비된 상품 또한 성장의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미국에서의 휴대폰 번호이동제 도입은 2004년의 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지역에서는 기본적 기능성이 주요한 요소인데, 중국의 경우 SARS로부터의 회복은 휴대폰 시장 확대를 가능케 하였고, 신규 가입자는 2003년 2억 5천만 이상 성장 하였으며 인도, 동유럽 및 아프리카와 같은 신규 지역에서도 추가적 시장진입이 예상된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2세대와 2.5세대 제품이 단기적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3세대 제품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PC 시장은 2003년에 들어 회복세로 들어섰는데, 우리의 2004년 PC 시장전망은 1억8천5백만대로 전년비 13% 성장을 기대하지만, 내년도에는 성장이 다소 완화되어 1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가정용 PC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며 계속하여 기업용 시장을 능가하고 있는데, 가정용 PC 시장은 2004년 동안 강세를 유지하였으며, 데스크탑과 노트북 제품의 교체 주기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가정용 시장의 노트북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은 2004년 전반을 통하여 강하였으며 저가의 제품에 의해 고무되었고, 동시에 시장분석 결과는 하이엔드 데스크탑 제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요를 보여 주고 있고, LCD 패널, DVD 리코더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썩트기 시작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2003년 동안 PC 시장에 대한 기업 수요가 돌아왔는데 초기에는 투자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산업이었지만, 2004년에는 이것이 바뀌었으며, 기업 PC 시장에는 올해에 크고 작은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트북 시장은 데스크탑 시장에 비해 두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제품수명 향상에 대조적으로 노트북의 수명이 짧는데, 이것은 반도체 시장에 고무적이다.

Emerging 분야는 단기적으로, 디지털제품에 대한 수요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분명히 주도적 요소이며, 그것들은 쉽사리 간과되어 왔지만, 산업의 성장에 있어 주요하고, 2005년에 있어 "차세대 주력상품"에 대한 전망 부족이 수요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한다.

예상컨데, 신규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며, 그만큼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의한 교체 및 확산이 기존 시장을 향상시키면서, 몇몇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다.

새로운 응용제품들은 오늘날의 기존시장에 상충되는 것이며, 이는 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나,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며, 인내와 확신을 필요로 한다.

내년 시장 전망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가, 환율,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 외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얼마큼 빨리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는 가는 계속되는 고민이며, 예전과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는 시점에서 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는 가가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여러 불확실한 외적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투자나 개발은 과감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세계 정상급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비싼 투자에 걸맞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컴퓨터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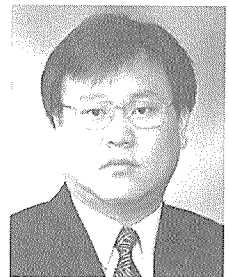
'04년, 공간절약형PC 급성장, 센트리노 노트북 주력으로 자리잡아 어느 시장보다 기술 변화에 민감한 PC 시장이 2004년을 마무리하고 2005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국내 PC시장은 전반적인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8% 성장한 275만 1천대 규모가 예상된다.

이중 데스크톱PC는 기업 및 공공부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13만 7천대 규모로 작년 201만 5천대 보다 6% 성장이 예상되며 노트북PC는 61만 4천대 규모로 작년 58만 5천대 보다 5% 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데스크톱 PC시장의 이슈는 슬림PC, 일체형PC 등 공간 절약형PC의 성장이다.

삼보컴퓨터, 애플컴퓨터 등이 LCD 일체형 PC를 내놓으며 공간 절약형 PC 시장을 이끌며, 또한 조립PC시장마저 슬림PC가 유행하면서 올해 3분기 판매만 봐도 작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삼보컴퓨터
박원구 이사

노트북PC 시장은 작년에 이어 센터리노 노트북이 강세를 보였으며, 올해 3분기 현재 센터리노 제품군은 전체 노트북 판매 중 79%를 차지하며 확실한 주력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PC 유통부문에서의 이슈는 단연 할인점의 PC유통 채널 정착으로 볼수 있는데, 11월 현재 5대 할인점의 매장 수가 184개로 대폭 늘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내년에는 최신 칩셋 탑재 디지털 컨버전스형 멀티미디어 신제품이 연이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홈네트워크, 맞춤형PC 등 제품마케팅 다변화와 정부차원 육성책으로 공공부문 수요의 증진이 기대 된다.

내년 PC시장은 올해 대비 3.4%성장한 284만 5천대 규모가 예상되는데, 데스크톱PC는 가정용 홈 네트워크 PC와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PC 수요가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220만대 규모로 접어들는다.

노트북PC는 기술적 요인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올해에 이어 5% 성장한 64만 5천대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PC시장은 세계 PC시장을 주도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신기술 적용으로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은 속도 경쟁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한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출시, 기존 칩셋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 XP 미디어센터 2005 에디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 삼보 등 국내 메이저 PC업체들도 LCD 일체형 올인원 PC, 홈시어터 PC 등 디지털컨버전스 PC를 대거 출시할 예정이다.

노트북PC 부문은 인텔의 소노마 플랫폼 출시로 비약적인 성능향상이 예상되며, 와이드 스크린을 탑재한 노트북이 대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내년 PC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삼보컴퓨터의 경우 브랜드 PC로는 처음으로 고급 맞춤형 PC(CTO : Configure To Order) 사업을 11월부터 개시했으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사양만을 탑재한 가격 파괴형 노트북의 등장도 예상되며, 또한 공공부문은 정부의 IT뉴딜 정책으로 20만대 이상의 PC수요가 생겨 PC시장의 활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이 환 인 그룹장

4.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고유가와 각국의 금리인상으로 '05년에 주요 선진국의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반도체 산업도 '05년에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단기 이동평균 성장률 추세를, 단기이동평균 성장율이 이미 하락으로 반전되었고 조만간에 장기 이동 평균 성장률을 하향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투자에 따른 Bubble 해소와 경기침체라는 악재가 겹쳤던 '01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32% 까지 축소되기도 했었다.

직전의 Cycle과 비교할 때 반도체업체의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높지 않고 세계경제도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5년에 세계 반도체시장은 '01년과 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역성장 보다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

'05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세계 GDP 성장율이 4.3% 정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04년 대비 1.2% 정도 성장한 2,153억불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의 주력제품인 DRAM시장은 '05년에 금년대비 3% 감소한 258억불이 예상되는데, 주 응용처인 PC의 출하량이 10%대로 성장율이 감소하고, PC의 메인 메모리 탑재량도 34% 증가에 그쳐 전체 DRAM의 수량(Bit) 증가율은 47%로 예상된다.

공급측 측면에서는 DRAM업체들의 투자 증가와 300mm Fab의 가동 본격화로 50%에 가까운 증가율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DRAM의 가격은 금년 대비 26%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Flash시장도 152억불로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Digital Camera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3세대 휴대폰 보급속도가 완만함에 따라 NAND Flash의 수요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STMicro/Hynix, Infineon, Micron 등의 후발업체들이 본격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와 Toshiba의 양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주력 품목은 DRAM이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실적도 DRAM시장의 부침에 따라 성장을 추세를 같이 하였다.

IT Boom으로 DRAM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던 '00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60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Bubble 붕괴로 인해 DRAM 시장이 붕괴되면서 '01년에 수출도 마이너스 45%까지 축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등장한 NAND Flash의 꾸준한 수요증가로 '04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38% 성장한 270억불에 달해 새로운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05년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업체들의 선전을 전제로 반도체 시장 성장과 연계된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5. 휴대폰 산업 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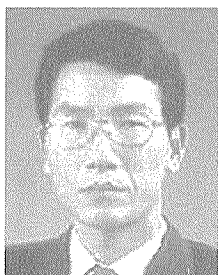
2004년 휴대폰산업의 세계시장은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의 Colour Camera Phone Booming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예상대비 매우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시장은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교체수요가 증가했고, 기업간에는 MEGA Pixel Camera Phone 등 신기술제품의 시장내 선출시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머징마켓에서는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본격화 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전체로는 약20%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 시장 규모는 6억 3천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세계시장은 북미, 서유럽의 교체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Camera Phone의 뒤를 잇는 Killer Application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머징마켓중에서는 중국시장의 성장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장은 MP3, DMB, TV PHONE 등 특화단말기들의 각축전이 전망되며, SKT에 대한 규제 및 W-CDMA 전환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팬택엔큐리텔
김 동 현 상무이사

6. 전자부품 시장 동향 및 전망

'05년 세계 전자 부품 시장은 정보통신, 휴대폰, PC등 IT산업의 성장을 둔화에 따라 주요 전자 부품인 반도체, PCB, 카메라 모듈, 소재부품 등의 성장율은 '04년 比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IT산업의 성장은 둔화되나, 휴대폰, PC등의 영역확대로 기술의 Conver-gence 및 Module化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할 전망이며, 핵심부품을 기반으로 한 Module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모듈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단순 조립업체와의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다.

품목별로는 휴대폰성장의 최대 수혜 품목인 기관, 카메라 모듈, LCD모듈, RF모듈 등의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급속한 SET의 가격하락으로 부품업체는 일부 핵심 업체를 제외하면 체산성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신규진입이 증가한 카메라 모듈 업체는 업체간 경쟁심화, 高 화소 제품의 공급 능력에 따라 사업의 희비교차가 예상된다.

PC 관련 부품 중 광 픽업은 수량은 소폭 성장하나 가격인하로 시장의 Volume은 감소가 예상되고, N/W부분은 무선랜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A/V 관련 부품은 DVD Rec.用 광 픽업의 증가, D-TV의 확대로 Digital Tuner의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범용 부품중 MLCC는 전반적으로 IT 산업성장에 따른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휴대폰 부문에서는 일본 선진업체를 필두로 한 소형화 추세(0402), N/PC, 휴대폰에서의 高 용량화, 경박화가 주요 Trend로 이어갈 전망이다.

신흥산업으로는 자동차의 전자화, Ubiquitous化에 따른 관련 부품이 Emerging Market으로 떠올라 점차 시장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부품산업의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선진 일본업체의 기술 Black box화와 중국, 대만 부품업체의 Captive Market 납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세계시장 진입확대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전자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삼성전기
김 흥 일 상무이사